

정규직 되지 17일만에...버스기사 죽음 내몬 '갑의 횡포'

회사측 교통사고 피해보상 책임 요구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 "대출 받아 동료기사에 돈 줬다" 녹취록 확보...동료·간부는 부인

시내버스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을 감당하는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내버스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됐지만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버텨내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 하소연이다.

해당 시내버스 기사는 지난해 11월 회사 간부에게 돈을 건넸고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등 심적 부담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측이 '갑(甲)의 횡포'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지난 18일 오후 나주시 남평읍 한 모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 속 메모장에는 "미안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보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A씨의 부인은 "그렇게 바라던 정규직 기사가 됐는데...라며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고 한탄했다.

A씨는 버스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만인 지난 2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는데다, 중형버스 운전은 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정규직 기사가 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했다는 게 유족들 얘기다. 중형버스의 경우 좁은 골목길을 지나다니며 운행 거리도 길어 늘 신경을 곤두세우

고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A씨는 그토록 꿈꾸던 정규직 기사로 전환됐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A씨는 정규직 버스기사가 된 지 17일 만에 삶을 등져야 했다.

유족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카드로 대출까지 받아 회사 간부에게 줬고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했다.

A씨와 부인의 통화 내역에는 A씨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들 부부 간 통화에는 "돈 있어?", "없지 왜?", "정규직이 되려면 350만원이 필요하다는데...", "대출받아야지, 그런데 그걸 주면 정규직이 될 수 있어?", "다들 그렇게 하는데..."라는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A씨는 이후 350만원을 카드로 대출받았고 정규직 회사 동료기사 B씨를 통해 간부 C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B씨와 나눈 대화도 담겨 있다. A씨가 "300만원을 나눠 갖는 건가

요"라고 묻자 B씨는 "혼자 다 갖지는 않지, 내가 회사 발전기금이라 안했다"고 말한 대화가 담겨 있다. A씨가 "300만원 돌려준다고 해도 다시 갖고 오지 마요. 나는 이제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B씨는 "누가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모른 척해"라고 나눈 대화 내용도 들어있다. B씨가 "(돈) 밀어 넣었다. 계속 끝까지 안받겠다고 해, 내가 술도 많이 먹고 (결국) 돈 넣어 놓고 왔다"는 대화도 담겨있다.

A씨는 이후 5월 11일 회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 "전혀 알지 못한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돈을 받아 건넨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사고 처리 태만행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다. A씨는 버스 운행 중 지난 10일과 11일 3차례의 교통사고를 냈다. 두 차례는 차고지, 한 차례는 운행 중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회사측은 A씨의 사고를 모두 회사 보험으로 처리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11일 A씨가 동료기사와 통화한 내용은 달랐다.

A씨는 이날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다. 회사에서 해결하라고 하네,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기로 했고 승객에게는 2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고처리 태만행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광주·전남지부장은 "광주지역 일부 운수회사에서 입사시 또는 정규직 전환시 돈을 요구해 이를 받은 임원이 해고되거나 운수회사관계자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광주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회사 경영상의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비정규직 버스기사는 804명으로 전체(2468명)의 32.57%에 달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족들, 경찰 수사 아쉬움 토로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 유족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실종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남겨놓고 집을 나선 남편의 은행 현금인출기 사용 여부를 확인, 경찰에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면 살릴 기회가 생겼지 않았겠냐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서부경찰에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화로 신고했다.

A씨가 집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사실도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A씨 위

"수색 서둘렀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12일 실종 신고, 18일 발견...CCTV 확인 늦어 동선 파악 한계

치 파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였다. 이 때 유족들이 A씨가 집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렸다. 해당 경로 주변에 있는 CCTV 등을 통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유족들의 호소였다.

실종수사팀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주변 CCTV를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결국 A씨는 지난 18일 광주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10여km 떨어진 나주시 남평읍 모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A씨 주변

CCTV를 뒤지던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6일 해당 모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인은 "신고는 12일 했고 남편은 16일 숙박업소에 들어갔으니 조금만 빨랐으면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A씨가 남평 가족 선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나주경찰에도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동선을 역 추적하면서 CCTV를 열람하고 있었다"면서 "실종수사팀 근무인원도 주간엔 3명 뿐이고 강제수사권도 없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름꽃에 물주기
광주시 동구 푸른도시과 녹지관리계 직원이 22일 오전 동명동 화단에 심어진 여름꽃에 물을 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고영구 광주지법원장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양 출신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영구 광주지법원장과 최인규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상자에 대한 법원 내·외부 천거를 받은 결과, 17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기택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9월 17일 종료된다.

예비후보자 17명 중 법관은 14명 변호사 2명, 교수 1명 등이다.

후보자 중에는 고영구(62·연수원 20기) 광주지법원장, 최인규(57·연수원 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고지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금오공고, 성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등을

대법관 후보에

지냈다.

해남 출신인 최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조대부고와 서울대를 거쳐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광양 출신인 구회근 부장판사도 후보자에 올랐다. 그는 순천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순천지원장 등을 지냈다.

이외의 광주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에 맡았던 서경원 서울회생법원장도 대법관 후보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광주 중국총영사 음주운전

중국 총영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총영사 A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넘어선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음주운전 상황이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